"밤샘 근무 없다니 꿈인가 싶네요"

기아차 광주공장 최장기 근속자 차체2부 정나연 기성보

"밤잠을 설쳤어요. 밤샘근무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한 없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작입니다."

기아자동차가 4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시행하자 가장 먼저 반긴 이는 정나연(55) 기성보(技聖補)였다.

지난 1978년 갓 스무살에 기아차 광주공장에 입사한 그는 광주공장의 최장기 근속자. 차체공장에서만 35년을 보내고 현장관리자를 맡고 있는 정씨에게 '2013년 3월 4일'은 잊지 못할 날이 됐다.

"오전 7시 출근인데 5시50분에 공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가, 4시에 또 일어났다가….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어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밤샘근무가 없어진 것은 21년 만이다. 이전엔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야간조는 오후 8시30분부터 날을 꼬박 새고 다음날 오전 7시30분이 돼서야 일이 끝났다. 주간 연속 2교대는 1조가 오전 7시 출근한 뒤 오후 3시40분에 업무를 마치고, 2조는 바로 이어 다음날 새벽 1시40분에 근무가 종료된다. 출근이 약간 빨라진 대신 밤샘노동은 사라졌다.

"새벽 3시30분 정도가 되면 몸이 견뎌나질 못했어요. 자야할 시간에 일을 하니 피로는 쌓여가고, 낮에 편안히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근무에 들어가면 항상 정서적으로 불안했죠. 졸렸던 시간에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아내와 출퇴근 시간이 엇갈려 '한집에 살아도 주말부부'였다는 정씨는 여가활용 시간이 늘어난 것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동안 미뤘던 치과 치료를 받고, 악기도 배우기로 했다. 틈이 나면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술숙련도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그는 여유가 생긴 만큼 후배 교육과 협력업체 지도에도 더 힘쓰겠다는 말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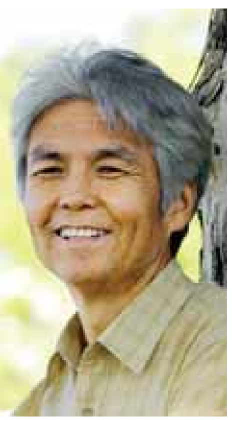
기아차 광주공장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기아차에 대한 애착과 바람은 누구보다 깊고 명확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주간 연속 2교대를 이뤘습니다. 남은 것은 광주 2공장이 하루 빨리 62만대 증산에 나서는 거에요. 실행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속도가 가장 빠른 공장이 되거든요. 광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이바지하는 부분도 많아질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작되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야 합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혜학교, 교육의 모범대안 됐으면"

대안교육 산증인 김창수 교장 퇴임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노력해 얻은 것이라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지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산 증인으로 꼽히는 김창수(56)교장이 지난 2일 철학대안학교 '지혜학교' 졸업식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교장은 2009년 6월 철학·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혜학교 창립대회를 열었고, 2010년 철학·인문학을 지향하는 중·고교 통합과정으로 문을 연 지혜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1년부터 간 이식 수술, 심장 수술에 이어 지난 1월에는 뇌 수술까지 수차례의 수술을 받고 몸 컨디션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지만 김 전 교장은 지혜학교 첫 졸업식에 참여해 직접 졸업장을 수여했다.

김창수 교장은 철학·인문학 교육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가르칠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현재 지혜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훌륭하지만 유일한 철학학교인 지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아쉬웠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혜학교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사 24명이 가르치고 있다.

김 교장은 "지혜학교의 교장에서는 퇴임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회복되면 영상 등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먹으면 약이 되는 '열대 과일'

순천대 박종철 교수 효능 해설 책 발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대과일의 한방적 효능, 약리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있다.

순천대 박종철(59·한약자원과)교수는 최근 81종의 열대과일에 대한 한방적 효능, 약리작용, 식용법 등을 설명한 '약이 되는 열대과일(푸른행복 출판사)'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81종 열대과일에 대해 맨 먼저 성질과 맛을 설명하고 이어 과육, 잎, 뿌리별 한방적 효능과 약리작용을 650여장의 컬러 사진을 곁들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망고스틴은 당뇨병 예방효과, 여지는 피부 미용, 망고는 노화 방지, 파파야는 소화 촉진작용, 두리안은 혈액순환을 좋게한다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

또 구아바는 혈당저하, 용과는 기침완화 작용, 잭프루트는 숙취해소, 스타프루트는 가슴이 답답할 때, 아보카도는 항당뇨 효능, 용안은 신경안정에 각각 효과가 있다고 쓰여있다.

특히 식용법도 상세하게 기술해 처음 접한 과일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과일에 얽힌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도 곁들여져 407쪽의 비교적 두꺼운 책이지만 지루하지 않다.

박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열대과일 효능에 대한 전문서적이 없어 관련 연구가나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책을 펴냈다"며 "널리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치 전문가로 순천대 김치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교수는 10여권의 김치 관련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반대 주민 설득 무등산 승격 큰 기여

화순군청 황경림씨 광주시장 표창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아 화제다. 주인공은 화순군청 환경과 지방보건 7급 황경림(여·45·사진)씨.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오전 정례조회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기여한 공로로 황경림씨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황씨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반대 천막농성에 나선 화순군민들을 상대로 매일 수차례씩 방문해 설득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총 16차례의 마을간담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지정의 반대여론을 찬성여론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황씨는 "당시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이미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효과가 더 크다는 정보를 제공했더니 지역민의 반대 여론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황씨의 주민 설득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부부처 심사팀은 국립공원 심사 때 반대 측 대표로 참가한 화순 국립공원 반대투쟁위원장이 되레 반대를 철회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결정된 뒤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화순군 사무소 유치를 건의해 직원 50명 규모의 화순군 동부사무소 개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황씨는 "앞으로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의 품격에 맞게 개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기초 지자체 채용 첫 변호사

보성군 기획예산실 박영란 변호사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뜻 깊을 것이란 생각에 보성군청을 선택하게 됐어요."

지난 4일 보성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계에 첫 출근한 박영란(여·33)변호사는 '군청 변호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초등학교까지 보성에서 자랐으며 지금도 부모님이 보성에 거주하고 있어 보성군은 물론 지역민의 기대가 높다. 그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기초 지자체에 채용된 첫 변호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시선을 모았다.

기초 지자체 변호사는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도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지금까지 줄곧 무산됐었다.

보성군도 1차 공모에 지원자가 없었으나 2차 공모에 박 변호사가 단독으로 지원해 심사를 거쳐 임용됐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 변호사로서 첫 근무지를 행정청인 보성군청으로 정했다.

그는 행정청에 들어 오는 민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다 시각이 다를 뿐이다"며 "행정청과 민원인의 시각을 맞추려고 법학지식뿐만아니라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행정기관 근무에 대해서는 권장하지만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급여나 대우가 변호사들의 기대에 비해 낮아 행정기관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며 "법무 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이철호 교수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민간경비학회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민간경비학회는 2000년 창립됐으며,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을 연구하는 경찰학, 범죄학, 법학 등 관련 전공학자 300여명이 소속된 학회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영윤 전남도 국제협력과장 '훈장'

고영윤 전남도 국제협력과장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훈장 전수식은 4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고 과장은 지난해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여수박람회지원관으로 재직하면서 박람회 준비에서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도(道) 차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박람회 개최 준비단계에서는 전남도가 주축이 돼 조직위원회, 여수시와 함께 매월 홍보마케팅협의회를 열어 3개 기관 간 역할분담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조직위와 공동으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박람회 인지도 제고와 여수박람회 관람객 유치 등에 기여했다.

지난 1977년 공직에 입문한 고 과장은 전남 행복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기업유치과장과 국제협력과장 재직 시에는 170여 건의 기업 유치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매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탤런트 이한위, 조선대 홍보대사에

'명품조연'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이한위(정밀기계공학과 33회)씨가 조선대학교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이씨는 4일 오전 서재홍 총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임명장을 받고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특강을 했다.

광주 출생인 이씨는 대학 4학년 때인 1983년 KBS 10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해 올해로 방송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그는 2009년 조선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조대인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관광협 내나라여행박람회 우수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사진)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내 나라 첫 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2013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우수홍보부문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관광협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이번 여행박람회 광주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추억여행'을 주제로, 추억의 광주사진관 및 7080축제 포토 존을 설치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여행박람회는 전국 100개 시·도 지자체 및 320여 개 업체가 참가해 10만700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 방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서생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강사회 수석부회장)·최경화씨 장남 준오군 박승균·조연자씨 장녀 영신양=16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정종영씨 장남 찬주군 한용순(순천 법무사)씨 딸 아름양=16일(토) 오후 2시 서울 메모리스웨딩홀 4층, 피로연 8일(금)오후 5시 로얄관광호텔별관웨딩홀 4층(순천시 장천동)

▲양중열·배정자씨 이남 시언(화순소방서)군 이승범·김미순씨 삼녀 재나양=16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아트홀 1층.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지원장 이달우) 제35회 정기총회=5일(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오씨 광주전남 대동종친회 월례회의(회장 오기만)=5일(화) 오후 6시 30분 종친회관(문흥동) 010-7589-8888.

▲재광 경주김씨종친회=5일(화) 오후 5시30분 맛집 한겨레(금남로 카토릭센터 뒤)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 신년하례 및 이사회(회장 정안숙)=8일(금) 오전 11시 30분 무등고시학원 3층 301호(대의동) 010-3609-2523.

▲무안박씨 광주종친회 정기총회(회장 박화석)=12일(화) 프라도호텔(백운동) 011-618-6633, 011-612-7074.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육) 월례회=5일(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술 문제 있는 우리가족 어떻게 하나요?" 알코올 전문의 초청 공개강좌=9일(토) 오전 10시30분 ~ 12시(비용무료) 062-526-3370.

▲'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신청자격은 3代 모두 현역의 병, 부사관, 장교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제출서류은 신청서·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FAX·우편, 표창은 20가문 선정하여 대통령표창 및 부상 500만원 등.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420, 4322.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 양성과정=교육기간은 5일(3월14일·15일·19일·20일·22일) 오후 1시30분~5시, 모집대상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강사 활동 가능한 성인, 모집기간 8일(금)(총 5명) 교육비 2만원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볼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부음

▲김경칠씨 별세 미애·혜숙·정신씨 부친상=발인 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의순씨 별세 이경희·정화씨 모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양연승씨 별세 이상화(전 세방기업 상무)·상호(전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사장)씨 모친상 김무웅(전 KCC종합창호주식회사 대표)·기세규(유원엔지니어링 전무)·이동주(인천시청 근무)씨 빙모상=발인 5일(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02-860-3510.

▲김영룡씨 별세 함수·현수·미란씨 부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나종남 (남/67세)
子:나소현
女/壻:나유리, 차리/박근모 未亡人: 박운옥
• 호실:201호 • 발인:3월 5일
• 연락처:227-4381

故이병남 (남/80세)
子/子婦:이동복/김정숙, 영오/윤현주, 영길/송영임,동준
女/壻:이동순/김영석, 만자
• 호실:301호 • 발인:3월5일
• 장지:나주 노안 • 연락처:227-4382

故김영금(여/92세)
子婦:유복래 女/壻:김종심/신정식, 정숙/공상인, 인숙/신용우, 향숙/송종갑, 현숙/임재식, 희숙/이한빈, 혜숙/박응렬
• 호실:401호 • 발인:3월 6일
• 장지:고흥 포두 선영 • 연락처:227-4383

故박애자 (여/99세)
子/壻:김영수/박영희, 철수/최순희
女/壻:김명자/조영호
• 호실:101호 • 발인:3월 5일
• 장지:화순 이양 선영 • 연락처:227-4385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